

술이 안 들어가네?

(항 음주 요법과 혐오 요법)

알코올 의존증은 난치의 병이다. 술을 계속해서 마시던 사람이 갑자기 끊을 경우에 우선 손떨림 등의 신체적 금단증상이 그를 괴롭히지만, 한동안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지내는 동안에도 문득 술 마시고 싶은 느낌이 들어 주체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전자의 경우 신체적 의존이라고 하고 후자의 경우를 심리적 의존이라고 한다. 심리적인 의존증을 의학적으로는 갈망(craving)이라고 한다.

술을 안 마시면 마시고 싶어지고 웬지 모르게 허전해지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 느낌일까? 금주 상태에서 발생하는 음주자들의 갈망은 뇌의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의 활성화와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GABA의 비활성에 기인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점에 착안하여 글루타메이트의 작용을 억제하고 GABA의 효력을 증강시켜 알코올에 대한 갈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아캄프로세이트(Acamprosate)라는 약물이 1990년대에 나오게 되었다. 이 약물은 현재 아캄프로롤(Acamprol)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생산되어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처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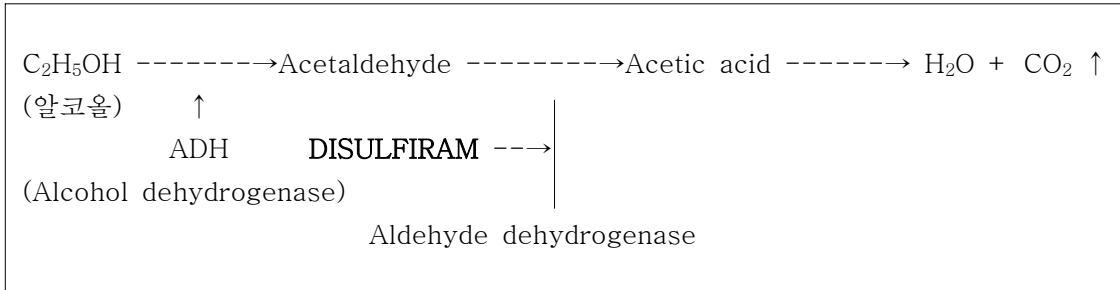
그러나 이 약물은 단지 갈망의 정도를 낮추어준다는 점 외에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의 음주행동을 강력하게 차단하는 힘은 부족하다. 그래서 이 약으로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는 데에 꼭 선행되어야 할 것이 "절대 안 마시겠다"는 강한 결심이다.

상당히 많은 수의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이 이 약을 먹으면서 음주 충동을 억눌러 잘 견뎌낸다는 점과 약물 자체의 독성이 낮아서 약을 먹고 있는 도중 돌발적으로 음주를 해도 몸에 커다란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어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과거에 오랫동안 항주제로 사용되었다가 강한 독성과 돌발적인 사고를 일으켜 음주자의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했던 디설피람(Disulfiram; 알콜스톱)은 현재는 잘 사용되지 않는 약물에 속한다.

디설피람은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될 때 나오는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를 더 이상 분해되지 못 하게 함으로써 그 독성의 경험을 극대화시킨다. 이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약 5분 내지 10분 사이에 얼굴이 심하게 붉어지고 혈압이 오르며 가슴을 쥐어짜는 듯이 아프고 숨을 쉬기 어려워진다. 심한 두통이 나오며 구역질

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약을 사용하는 금주 요법을 혐오(嫌惡)요법이라고도 말한다.



정상적인 알코올의 분해 과정과 이 과정을 방해하는 디설피람과의 관계

약국에서 처방 없이 쉽게 약을 살 수 있었던 과거에는 남편의 술주정에 시달리던 가정주부들이 이 약을 국속에 몰래 풀어 넣어 남편의 음주 행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약을 먹고 있는 도중에 과음을 하게 되면 강한 독성 반응으로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 호흡이 억제되거나 울혈성 심부전, 심근경색, 폐부종, 두개골 내출혈, 경련 등이 일어나 사망하게 된다.

과거에 술 때문에 가족을 괴롭히던 사람이 “갑자기 술 마시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아마도 그들 중 상당수는 이런 이유로 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까 추측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치료법은 절대로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시행해서는 안 된다.

요즘에는 이런 사망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디설피람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또 술을 끊겠다는 결심으로 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사람들 중에는 술 생각이 나면 언제라도 다시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술머시 약을 먹지 않으면서 마치 먹고 있는 것처럼 주위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아 이 약을 먹든 먹지 않든 간에 알코올 중독의 재발률은 그다지 차이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문헌에 따르면 이 치료법은 술을 끊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통해 이해를 시킨다면 어떤 방식의 치료법보다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스스로도 정말 술을 끊고 사람답게 살고 싶어 하지만 술만 보면 그런 결심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가 이튿날 아침에는 그런 자신이 죽이도록 밉고 원망스러워지는 감정의 혼란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지지적인 정신치료와 함께 병행하면 괄목할 만 한 성과를 거두는 것 같다.